

# 서울YWCA

202405  
06 | Vol.630

“ 옷만 잘 입어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

환대 캠페인  
환대,  
있을 자리를 주는 일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 마가복음에 드러난 생태적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박영숙

회원 증모 운동  
서울YWCA 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술과 삶  
한국 최초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육경

# Slow 슬로우 패션 Fashion

슬로우 패션은, 패스트 패션의 반대 개념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운동 또는 패션 추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문화를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의식 있는 패션이라는 의미의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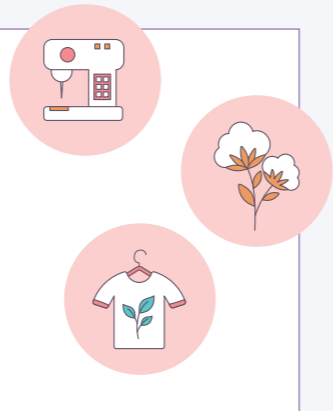
옷을 생산,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합성섬유로 만든 옷은 세탁이나 폐기할 때 미세플라스틱도 방출합니다. 청바지 한 장을 만드는 데에는 7,500ℓ의 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4인 가족이 5-6일 정도 쓸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해요.

유행을 따르는 패스트 패션 대신 생명의 가치를 입는 '슬로우 패션'을 실천해 봅시다.



## 옷만 잘 입어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 천연소재 등 친환경적인 옷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요
- 한 번 사면 오래 입어요
- 수선과 리폼으로 업사이클링에 도전해 봐요
- 안 입는 옷은 서로 바꾸어 입어요
- 공정거래 상품 소비로 저임금 노동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요



###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YWCA 2024년 5·6월호 | 630호

### 5월 공동기도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어른스러운 아이를 칭찬하는 대신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른들도 어린이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순수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 6월 공동기도

평화의 하나님, 세상이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도 어려운 평화의 길보다 쉬운 폭력의 길로 달려갑니다. 부디 이 땅이 당신의 살롬을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생명을 향한 폭력과 살육은 가능성조차 잊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2	즐거운 불편운동 슬로우 패션
4	환대 캠페인 환대, 있을 자리를 주는 일
6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③ 마가복음에 드러난 생태적 예수
8	Y이슈 이사·위원 연구모임
10	현장 속으로 텀블러 품질비교 결과
12	예술과 삶 한국 최초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옥경
14	서울Y 소식 3·4월 뉴스 5·6월 행사 안내 5·6월 캘린더
20	후원 소식
23	시민견기축제
25	라운드 테이블 “당신의 꿈은 행복에 닿아있나요?”
26	알림터
27	기독시민아카데미
30	회원이 되어주세요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박영숙, 영원한 현역 운동가

〈서울YWCA〉 2024년 5·6월호 통권 제630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4년 5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김유애 이재숙 인 미 조희수 최문희 최해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환대, 있을 자리를 주는 일



**정현주**  
서점 리스본 대표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작가  
「그래도, 사랑, 저자」

배경은 영국 북동부 작은 도시 더램이다. 하늘이 흐린 날이다. 승합차 한 대가 작은 골목에 들어서더니 사람들 여럿을 내려놓는다. 흑발의 여성과 아이들이다. 백인 남자들이 차를 둘러싸더니 외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목에 DSLR 카메라를 걸고 소녀 하나가 차에서 내린다. 한 남자가 카메라를 낚아채 장난을 친다. 돌려달라고 소녀는 애걸하고 남성은 깔깔거리고 둘러싼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소녀는 울지 않는다. 소란 중에 카메라가 땅에 떨어진다. 한 손에는 망가진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겁먹은 동생을 안고 소녀는 숙소로 들어간다. 냉대는 이어지고 뒤따라오는 어머니의 가방은 무겁다.

거장 감독 켄 로치가 은퇴작을 발표했다. 영국 북동부 3부작 중 세 번째다. 1부는 은퇴한 목수와 싱글맘이 등장하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부 <미안해요, 리키>에는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가 등장한다. 현실은 잔혹했다. 영화에서마저도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결말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은퇴작이라서였을까. <나의 올드 오크>에서 켄 로치는 다른 가능성을 향한다.

주인공은 폐광도시에서 펍을 운영하는 TJ다. 배경은 2016년 영국 북동부 탄광도시 더램으로 한 때는 2차 산업의 요충지였다. 석탄이 쏟아지고 돈도 흘러넘쳤으나 세상이 바뀌어 탄광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일을 잃었다. 빈집이 늘어갔고 남은 이들은 여유를 잃고 으르렁거린다. 펍은 텅 비었다. 떨어진 간판을 수리할 여유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몇몇 단골은 남아서 빛나던 시절을 추억했다. 대화는 시비로 끝나기 일쑤였다. 뾰족해진 마음과 거칠어진 말로 가득한 그곳에 시리아 난민들이 찾아온다. 난민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를 상상할 여력이 더럼 사람들에게는 없었다. 우리끼리 살아내기도 힘든데 너희까지는 품을 수는 없다고 폐광도시 사람들은 “돌아가라” 외친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문장 하나를 돌려준다.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야라. <올드 오크>의 풍경과 온도를 바꾼 시리아 소녀의 이름이다. 부서진 카메라를 들고 펍을 찾아와 카메라를 부순 남자를 아는가 묻는다. TJ는 소란을 피하고 싶어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한다. 대신 자신이 갖고 있던 낡은 카메라를 팔아 야라의 것을 수리해준다. 사진작가가 꿈이라 아버지가 선물해준 거라 했다. 야라의 아버지는 가족을 탈출시키고 고국에 남았는데 생존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도시가 몰락하고 가난이 찾아올 때 TJ도 가족을 잃었다. 상실에 대한 공감에 연대를 만들었다. 보답을 하고 싶다면 야라가 식사 초대를 하며 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소동과 비난이 두려워 굳게 문을 닫았던 시리아인들이 TJ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서니 뜻밖에도 포근한 온기가 흘렀다. 야라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따뜻하고 흥겨웠다. 마주 앉은 식탁에서 연대가 시작됐다.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야라가 안겨준 문장을 TJ는 주변과 나누고 싶었다. 올드 오크에 시리아식 테이블을 차리고 이웃을 초대한다. 판을 벌이자 환대하고 싶었지만 호의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TJ와 야라를 돕는다. 다정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까. 블루칼라의 감독이라 불리는 켄 로치는 절망으로 가득 찼던 영국 북동부 시리즈 마지막에 희망을 두고 떠났을까.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 여기서 줄이고 책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한다.

“이 책의 키워드는 사람, 장소, 그리고 환대이다.

이 세 개념은 맞물려 서로를 지탱한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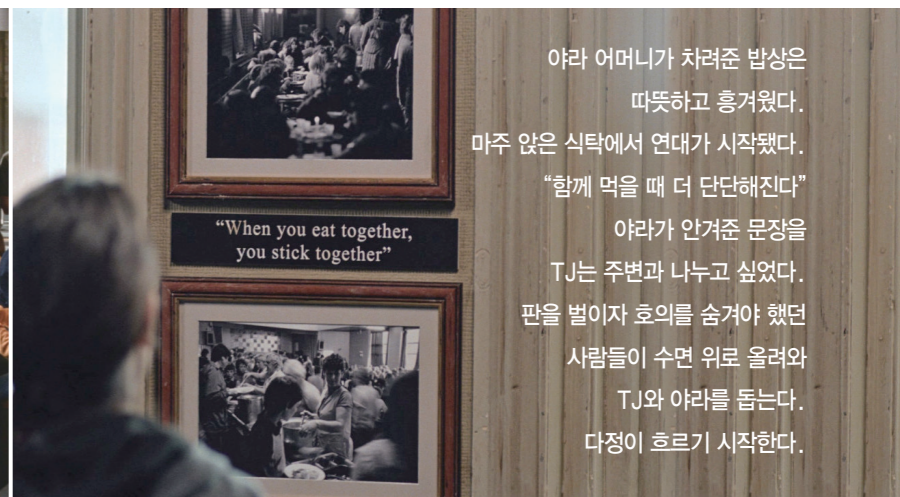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 장소를 갖는 것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에 실린 문장이다. 장소와 자리를 주고 있는가. 이 책을 읽은 이후 자주 질문하게 됐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그 모든 것에도 꺾이지 않은 다정과 희망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닫힌 문일까, 열린 문일까. 반대로, 그들의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애써 도착한 그들의 문 앞에 냉대와 모욕을 두고 가는 존재일까, 열고 들어서는 사람일까. 야라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린 TJ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 위로와 희망을 얻어오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 자신일 지도 모른다. ♣



영화 <나의 올드 오크>



야라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따뜻하고 흥겨웠다. 마주 앉은 식탁에서 연대가 시작됐다.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야라가 안겨준 문장을 TJ는 주변과 나누고 싶었다. 판을 벌이자 호의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TJ와 야라를 돕는다. 다정이 흐르기 시작한다.

기후위기시대, 생태정의를 위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성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찾아봅니다

## 마가복음에 드러난 생태적 예수 길 위를 걷는 예수님



최광선  
덕신교회 담임목사

봄 길을 걷노라면 어느 시인의 말처럼 매년 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다시 쓰신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호젓한 들 길을 걷노라면 파릇파릇한 새싹부터 장미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프랑스 지성 에르네스트 르낭(E. Renan, 1823-1892)은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자연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르낭은 “예수의 설교는 자연의 정기와 들의 향기가 넘쳐흘러 시원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꽃을 좋아해 자신의 가장 매력 있는 가르침을 꽃에서 따왔다. 하늘의 새와 바다와 산과 어린이들의 유희가 번갈아 그의 설교에 나오곤 했다”고 말합니다.

### 광야에서 무덤까지, 걷고 또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길 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어디론가 움직여갑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지만, 그의 출발지는 길이 없는 광야(막 1:9)였고, 도착지는 막다른 길 무덤(막 15:46)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과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흠먼지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습니다. 광야와 외딴곳, 빈들과 산에 머물기를 즐겨 했으며

갈릴리호숫가와 밀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으나 중요한 가르침들은 산 위에서, 갈릴리호숫가에서, 들녘에서,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길을 걸었고,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걷는 길마다 생명의 하나님 나라 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 요단강, 갈릴리, 호숫가, 호수 위, 가버나움, 외딴곳, 밀밭 길, 산, 나사렛, 촌락, 한적한 곳, 풀밭, 물 위, 게네사렛, 마을, 도시, 농촌, 두로, 시돈, 데카폴리스, 벳세다, 마을 밖, 가이사라, 높은 산, 내려오는 길, 올리브 산, 벳파게와 베다니, 겐세마네, 골고다 가는 길, 골고다, 무덤 등입니다. 마가는 약 60회가량 장면을 바꿔가며 예수님이 걷는 길을 비취줍니다. 반면 예수님은 집 또는 실내에서 머물기도 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 베드로의 집, 레위의 집, 어떤 집, 예루살렘 성전, 시몬의 집, 마지막 만찬 집, 대사제 저택, 빌라도 관저, 제자들 식사하는 곳 등입니다.

마가는 즉시, 때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결합하여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예수님께서 걷는 길을 펼쳐 보입

중세 이전 사회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신비로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내 삶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교실은 자연이었으며,  
교과서는 창조세계였습니다.

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은 단순한 복음의 배경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길, 광야, 강, 마을과 촌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예수님의 교실은 자연, 교과서는 창조세계

길 위를 걷는 예수님은 창조세계를 단순한 대상이나 객체가 아닌 복음에 참여하는 주체들로 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성스러움이 가득했다. 자연을 도구적인 대상으로 여겨 물질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이런 의식은 근대 기계적 세계관이 형성된 이후 인류가 갖게 된 의식입니다. 중세 이전 사회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신비로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내 삶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사람, 산, 강, 바람, 하늘, 새, 풀, 나무 등)입니다. 우주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을, 광야, 산, 호

수, 식물과 꽃들은 예수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교실은 자연이었으며, 교과서는 창조세계였습니다. 땅, 씨앗, 농부 등은 예수님께서 농부의 시선으로 자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신비를 바라보셨음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 통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연에 대한 왜곡된 시선, 즉 천연자연, 경작지, 또는 인간을 위한 휴식 공간쯤으로 여기며 기계적이고 객체로 이해한 시선을 해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활동에 대한 매개체로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이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각인시킵니다.

복음서를 읽는 이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즉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연이 단순히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현존과 돌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의 과정을 방해하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며, 모든 생명을 위한 존재입니다. 길 위를 걷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태적입니다. 길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생태적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

\* 다음 편에서는 누가복음을 통한 생태적 성찰을 소개합니다

최광선 박사는 생태중심도시 순천에 있는 덕신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자연은 벗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경이라 말한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아파하며 예수께 길을 묻는 구도자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 신학부에서 생태영성을 전공(Ph.D)했다. 공저로 「지구 정원사 예수」가 있다.



## 이사·위원 연구모임

서울Y는 2024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3월 28일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사, 위원, 실무자 100여 명이 모여 개최예배를 드린 후 'AI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AI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민성과

앞으로의 서울Y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개회예배는 배은경 부회장의 인도로 드러졌다. 전현숙 이사의 기도에 이어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가 하박국 2장 1-4절을 바탕으로 '믿음의 용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 2:4)에서 '믿음(에우나)에는 견뎌내다, 진실되다, 맡기다 세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맡겨진 자리(성루, 1절)에서 신실하게 견디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신실하게 견뎌내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며 연구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했다.

끝으로 이복희 이사의 기도와 함께 드러진 특별헌금은 아시아·북미 연대체 '버마플랫폼'을 통해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설교를 맡은 천영태 목사



인사말씀 전하는 조연신 회장



### 주 제 강 의

## AI 시대, 새로운 시민성을 찾아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AI는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강력하다. AI로 인한 문제의 핵심은, 그 결과도출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술의 변화로 인간 생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AI의 등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며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AI 발전과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빌게이츠'. 그는 인생에서 두 번의 찬스, 혁명적 기술을 만난다. 첫 번째는 1980년 그래픽(그림)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고, 두 번째가 2022년 Chat GPT(오픈AI)라고 부르는 거대언어모델(일상어·자연언어)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의 실험 결과다. 빌게이츠는 100억 달러를 오픈 AI에 투자하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첨단 AI는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가 인간 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상대와 소통하며 학습하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의 '인종차별, 여성혐오' 어부징을 따라하는 부작용도 보고되었다. 결과도출과정을 알 수 없어 수정도 어렵고 개발자도, 운영자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1966년에 이미 MIT 공학자 요세프 바이첸바움은 채팅로봇 '일라이자'를 두고 "기술이 인간 배신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에 MIT 사회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책 「외로워지는 사람들(2012)」을 통해 문제는 사람을 속이는 로봇이 아니라 '기계를 선호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영어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는 '탈진실(Post Truth)'이었다. 탈진실은,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적 호소가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가짜뉴스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가짜뉴스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알고리즘'이다. 만물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계 인식, 자동화 처리 등으로 알고리즘이 보편화되며 그만큼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은 기업과 권력자의 기밀이자 자산이 되며 알고리즘 지배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레프 마노비치 문화분석연구가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발자도 의도하지 못한 통제 불가의 상황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의식없는 지능(AI)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고비"  
- 유발 하라리

민주주의 환경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 민주주의철학의 근본적 전환

*of the people*

AI와 플랫폼은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과 국가권력의 소유

*by the people*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의해

*for the people*

절대권력 집단과 빅테크기업, 그 소유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렇다면,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서울Y는 무엇을 해야 할까? AI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민교육, 사회제도와 함께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필요하다.Y

#### [워크숍] AI 시대, 필수 능력 & 서울Y 운동 방향 제안

- AI 활용법, 특히 질문·명령어 생성 능력 강화
- 정보에 대한 비판적, 주체적 자세 확보
- 인문학, 철학적 소양 확대
- AI 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 제도화 등 AI 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 데이터 관리 모니터링 사업
- 인간존엄, 공동체성 강화하는 관계의 장 마련
- 기본 윤리와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 위한 교육

## 텀블러 품질비교 결과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밀폐력·그립감 만족도 가장 높아

최근 기후위기 시대 대안 소비로 텀블러 사용이 늘면서 브랜드마다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YWCA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8개 브랜드 13개 제품의 주요 품질 및 성능(보온·보냉, 밀폐성,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 밀폐력·그립감 긍정적, 세척·휴대성은 만족도 낮아

5가지 사용 편의성(밀폐력·그립감·결로현상·휴대용이성·세척용이성)의 사용자 평가는 밀폐력, 그립감의 만족도가 높고, 세척용이성과 휴대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밀폐형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세척용이성은 준밀폐형이 더 높았다.

### ●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연마제는 세척으로 제거 가능해

마개, 패키징, 몸체 소재별 유해물질, 표면 페인트 중금속 검출 확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 스테인리스 제조 시 사용하는 연마제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세척 전 연마제가 묻어나왔으나 세제와 식용유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에는 잔류하지 않았다.

### ● 전 제품 표시기준 준수, 입구 지름 등은 제품 특성 차이 있어

용량은 전 제품이 표시의 95% 이상으로 기준에 적합했으며, 입구 지름은 '준밀폐형(78-86mm)'이 '밀폐형(50-66mm)'보다 넓어 얼음이나 음료를 담기에 더 수월하였다. 입구가 가장 넓은 제품(글라스락 클립형, 86mm)과 가장 좁은 제품(써모스 캐리 루프, 50mm)의 차이는 약 1.7배, 가장 무거운 제품(스탠리 고 진공 보틀, 346g)과 가장 가벼운 제품(써모스 캐리루프, 236g)의 차이는 약 1.5배였다. **Y 정리 김진아** 생명운동팀 간사

### 시험대상 제품

-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가지 형태 구입
  - ① 마개에 음용구가 있는 준밀폐형
  - ② 음용구 없이 돌려 닫는 보온병 형태인 밀폐형
- 용량 450~500ml, 몸체 재질은 스테인리스
- 준밀폐형(컵, 5개)
  - 글라스락 클립형, 락앤락 퓨어, 블루보틀 미르 커뮤니티, 스타벅스 SS엘마, 스탠리 고 진공텀블러
- 밀폐형(보온병, 8개)
  - 글라스락 스포티 핸들, 락앤락 메트로 투웨이, 블루보틀 데이오프, 스타벅스 블랙앤크드 스탠리, 스탠리 고 진공 보틀, 써모스 캐리루프, 투썸플레이스 SS멀티, 할리스 리더 스트랩

### 결과

#### ● 밀폐형이 준밀폐형보다 보온·보냉 성능 상대적으로 우수

텀블러 주요 성능인 보온·보냉은 음료를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유지하는 성능으로 13개 제품 중 '써모스(캐리 루프 텀블러)'가 가장 뛰어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전밀폐되고 입구가 좁은 밀폐형이 준밀폐형보다 보온·보냉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제품 간 차이가 컸다(최대 17.3°C). 반면 준밀폐형은 입구가 넓고 음용구가 있어 보온 성능은 낮았지만,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밖에 밀폐성과 표면온도, 도장의 밀착성은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했다.

#### ● 텀블러 대비 일회용컵 환경 영향 평가, 탄소배출량 최대 16.5배

마개, 패키징, 몸체가 폴리프로필렌(PP)과 고무, 스테인리스 소재로 구성되어 배출량 산출이 가능한 6개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과 일회용컵을 비교한 결과, 하루 1회 1년 사용 시 플라스틱컵은 텀블러 평균 배출량의 16.5배, 종이컵은 12.9배의 탄소를 배출했다. 텀블러는 제조전 단계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해 1회차의 탄소배출량은 일회용컵보다 높지만 일회용컵은 매번 컵 사용과 폐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출량은 늘어났다.

### 텀블러 선택·사용 요령

- ☑ 텀블러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후 선택한다  
준밀폐형은 온도 유지력은 짧지만, 음료를 마시기 편한 구조, 세척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밀폐형은 안정적인 보온·보냉 성능, 장시간 음료 보관에 용이하지만 세척이 어렵다.
- ☑ 세척으로 연마제는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  
연마제는 제품 첫 사용 전, 세척으로 충분히 제거되며 물로만 헹구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 세척 방법\*을 참고하거나 제조사 권장 방법대로 세척한다.  
\*종이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표면을 닦아내고, 식초를 첨가한 끓인 물에 세척
- ☑ 사용과 폐기 단계까지 환경성을 고려한다  
텀블러는 재사용과 장기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므로 보온·보냉 성능이 떨어지거나 용기 내부에 손상이 있지 않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며, 폐기할 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재별로 분리 배출한다.



# 한국 최초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욱경 崔郁卿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작업실에서의 최욱경, 1972  
1940.12.22 - 1985.7.16

1971년 최욱경은 미국에 작품 천여 점을 남겨둔 채 30점을 가지고 일시 귀국해 강렬한 색채의 에너지 넘치는 추상작품들을 선보인다. 당시로서는 처음 접하는 스타일로 한국 미술계에 충격을 주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여성은 얌전하고 정적이며 전통적 기법의 작업을 주로 하고 남성들이 추상 작업을 한다는 고정관념 아래 155cm의 키에 43kg의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 뿔어낸 강렬한 붓질의 에너지 넘치는 그림은 거부감을 주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욱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식 추상표현주의 작가로, 안타깝게 요절한 천재 화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향의 여성

최욱경은 1940년 서울 낙원동에서 교과서 전문 출판사인 교학도서(주)를 운영하던 최상윤과 어머니 조하진 사이 4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일찍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인 그는 넉넉한 가정형편과 자식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10세 때부터 을지로에 있던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 부부에게 그림을 배웠다. 이화여중 때는 김홍수가, 서울예고 재학 중에는 김창렬이 미술 선생이었기에 당대 최고의 화가들로부터 미술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미대 재학 중에는 한국미술가협회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1963년 대학 졸업 후 바로 도미하여 뉴욕 크랜브룩 예술대학 학사,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 과정, 프랭클린 피어스대학 조교수 생활을 끝으로 잠시 1971년에 귀국하여 3년간 지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79년 영구 귀국할 때까지 1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은 최욱경의 화가로서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자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구축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최욱경은 이질적이고 낯선 환경에 처했지만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추상표현주의, 팝 아트, 네오 다다 등의 새로운 미술을 접하고 실험하고 응용하는 데에 거

리낌이 없었다. 미국에 정착한 많은 한국 작가들이 낯선 환경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해 결국에는 한국적 이미지와 색채로 귀착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보였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국제적 매너에 익숙했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향의 여성으로서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억압 없이 자신의 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동료에게 자신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화난 여자처럼 보인다는 농담을 종종 하기도 했다.

## 1984년 작 「풍경」, 1억 700만 원에 낙찰

최욱경의 작업 변천은 세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추상표현주의 등의 동시대 미술을 폭넓게 수용한 시기이다. 이때의 그림은 추상표현주의 화가 윌렘 드 쿠닝(1904-1997)의 영향을 받은 듯한 작업들로, 대담하고 감성적인 색채와 거침없는 붓질이 특징이다. 때론 팝아트의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거나 컴바인 아트, 한국의 붓글씨나 묵화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일필휘지의 붓놀림을 보인다. 두 번째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구상과 추상이 결합된 독자적 추상미술을 제작한 시기다. 한국 단청의 오방색에서 큰 영감을 받아 원색의 강렬한 대비, 꽃, 새 등의 형태를 지워나가면서 추상화하는 표현이 특징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귀국 후부터 1985년 타계할 때까지이다. 귀국해 대구 영남대에 2년간 조교수로 있으면서 경상도의 산, 바다, 섬 등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색채도 파스텔조로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에서 오는 곡선과 형태의 조형미가 돋보인다. 그 후 덕성여대 재직 중에는 여의도 47평 아파트에서 무무당(無無堂)이라는 현판을 달고, 한 작업에 매달리면 식음도 전폐하고 작업에 몰두했다. 2024년 K옥션에서 1억 700만 원에 낙찰된 1984년 작 「풍경」은 한참 전성기의 작업으로 가로로 긴 화면 안 반



「풍경」 1984. 캔버스에 아크릴릭, 54cm X 116.5cm.

원 속에 굽이굽이 늘어선 산들과 노을 진 하늘의 풍경이 담겨 있다. 반원은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물에서 오는 곡선과 대비되는 네 개의 직선은 긴장감과 조형미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에 새로운 색채 추상을 선보였던 최욱경은 “내 그림 속에는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내 그림 속에는 생명체들이 숨 쉬는 색상이 나타난다(1982).”고 말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작업과 후진 양성에 힘쓰다 집에서 음주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안타깝게 1985년 45세에 요절했다. 이후 최욱경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2007년 국제청장 청탁 뇌물 사건에 그의 그림 〈학동마을〉이 등장하면서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 사건은 무죄로 판결났다. 최욱경의 작품들은 이병철 회장의 수집으로 리움미술관에 몇 점이 있으며 유족들의 기부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많은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사후 30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최욱경 회고전이 잇달아 열렸다. 2021년에는 세계 106인의 여성추상화가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 전시되었다. 최욱경은 문학적 감수성에도 뛰어나 자신의 그림이 들어간 두 권의 영문 시집을 남겼으며 그중 한 권은 1972년 한국에서도 「낯선 얼굴처럼」이란 제목으로 번역출간됐다. ♪



## Y-틴, 대학·청년YWCA 신임원연대활동



서울Y는 4월 6일 'Y-틴, 대학·청년YWCA 신임원연대활동'을 회관 마루에서 진행했다. 14개의 Y-틴, 대학·청년Y 동아리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Y와 청(소)년 운동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아리 임원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드로 사회 이슈 워크숍을 열고, 최근 자극적인 키워드만 내세우는 단편적인 기사가 많아 콘텐츠를 다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사회 문제가 '나와 나의 친구'의 일이 된 경험을 나누며 사회 문제는 곧 우리의 일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청(소)년도 주체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동아리 임원들은 서울Y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임원협의회를 운영하며 청(소)년 연합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봉천

####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7일 지역 내 중·장년 1인 가구(3명)에게 수납장과 식탁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스튜디오 삼익가구가 후원하는 서울시 1인 가구(家具) 지원 사업 '퍼니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노원

####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13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좋은 조직문화'를 진행했다. 'IBK참좋은 어린이집'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MBTI 워크숍을 열고 조직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각 유형별 행동의 특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직원 간의 소통방법을 탐색했다. 특히 MBTI 반대 유형별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강남

####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치활동단 발대식



강남청소년수련관은 3월 16일과 22일 강남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2024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자치활동단(6개) 발대식을 진행했다. 위촉장·인준장 수여, 팀빌딩,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소속감을 높이고 주도적 참여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자치활동단이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나갈길 기대한다.



## 서울돌봄과살림 회원 봄소풍



서울돌봄과살림은 4월 13일 서울숲으로 '2024 회원 봄소풍'을 다녀왔다.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연을 감상하고, 신선한 봄바람에 일상의 피로를 씻어냈다.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과 회원들의 장기자랑 속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내며 에너지를 가득 채웠다.

### 영등포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개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15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지원자 중 선발된 총 20명의 교육생은 8월 14일까지 인사·급여관리, 회계, 세무이론·실습과정(더존프로그램) 등 전문직업교육을 받는다. FAT, TAT 자격증 취득과 교육 수료 후에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누리봄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지원

누리봄은 3월 26일 KRX국민행복재단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KRX국민행복재단은 이번 후원을 통해 누리봄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를 집중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누리봄 아이들이 미술·언어·인지 치료를 비롯한 가족집단 상담 등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4 Y-틴/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서울Y는 청(소)년 회원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교류를 통해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Y-틴/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을 개최합니다. 청(소)년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싶은 회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일시 5월 18일(토) 13:00-16:00
- 장소 4층 대강당
- 내용 여는 예배, 서울Y 소속 Y-틴/대학·청년YWCA 동아리 공식적 인준, 인준장·임명장·위촉장·장학증서·표창장 수여, 비전 특강, 회원 간 교류
- 문의 02-3705-6023, 6009

###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5월 8일(수) 6월 18일(화)	1만원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10:00	2만원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6월 19일(수) 10: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서울YWCA 창립100년  
Y기금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즐거로운 자립생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서울YWCA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불어 넣을 '즐거로운 자립생활'에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18(토) 14:00-17:00  
나를 알아가기 퍼스널컬러진단, 스타일링
- 6/1(토) 14:00-17:00  
나를 표현하기 우리가 선택한 요리 배우고, 만들기
- 6/15(토) 14:00-17:00  
세상 알아가기 ㉠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임대차-근로계약서)
- 6/29(토) 14:00-17:00  
세상 알아가기 ㉡ 경제교육 (금융사기 예방 등)

**모집대상** 자립준비청년 19세~29세  
**모집기간** 2024년 4월 15일(월)~5월 14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YWCA 홈페이지  
**선정기준** 2회차 이상 참여 가능 신청자 선발 (3, 4회차 중 한개 이상 반드시 신청)

서울YWCA 회원모금팀(02-3705-6046)


신청하기

# CALENDAR

2024 **5**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날  
2  
3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4  
· 봉천 어린이날 행사  
10:30

6 **어린이날 대체휴일**  
7 **위원회**  
재정부 11:00  
장학 13:00  
8 **어버이날**  
**동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10:00  
9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0  
11 **시민걷기축제**  
8:00  
  
**위원회**  
국제협력팀 12: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5일) 10:00

13 · 역대이사모임 11:00  
14 **이사회** 10:00  
15 **부처님 오신날**  
16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17 **위원회**  
강남Y 11:00  
· HERizon 리더십 프로그램 클로징 세레머니 10:00  
18  
· 강남 세계문화축제 11:00  
·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13:00  
· 슬기로운 자립생활 14:00

20  
21 **위원회**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노원Y 12:30  
22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 청년커뮤니티 은하수 20:00  
23  
24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5

27 **위원회**  
봉천Y 11:00  
28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9  
30  
31

# CALENDAR

2024 **6**

월 화 수 목 금 토

1  
· 슬기로운 자립생활 (15일, 29일)  
14:00

3  
· 명예위원모임 11:00  
4 **위원회**  
재정부 11:00  
5  
6 **현충일**  
7  
8 **동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 아기돌보미 10:00  
가사돌보미· 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2일) 10:00

10  
· 역대이사모임 11:00  
11 **이사회** 10:00  
· 기독교민아카데미 (18, 25일) 14:00  
12  
13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4  
15  
· 청소년평화아카데미 운영진 정기회의 11:00  
· 청년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13:00

17  
18 **위원회**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노원Y 12:30  
**동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10:00  
19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동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 청년커뮤니티 은하수 20:00  
20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21 **위원회**  
강남Y 11:00  
평생체육팀 11:00  
22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6  
27  
28  
29 **위원회**  
국제협력팀 11:00

# 감사합니다

2024년 2월-2024년 3월

## 특별 후원



- **이행자 기금**            이행자
- **재정위원회 기금**    재정위원회
- **회보 제작**            (주)아모레퍼시픽
- **걸기대회 찬조금**    명예위원회    평생체육위원회
- **이사위원연구모임**    배은경 이복희 이정희 이희전  
전영지 정수경 조연신 최한나

## 일반 후원



- |     |     |     |     |     |      |     |
|-----|-----|-----|-----|-----|------|-----|
| 채재호 | 김현경 | 강서현 | 고려옥 | 고선혜 | 곽민규  | 구영숙 |
| 권혜진 | 기영숙 | 김미자 | 김선자 | 김소희 | 김숙희  | 김윤희 |
| 김인복 | 김정순 | 김해정 | 김 형 | 민혜경 | 박숙자  | 박위자 |
| 박정희 | 박재희 | 박진선 | 박혜리 | 배은경 | 배정미  | 서해영 |
| 석성욱 | 송순옥 | 심영자 | 양수경 | 염현경 | 오준호  | 우정현 |
| 우주훈 | 우훈희 | 유광주 | 육순연 | 윤혜선 | 이애진  | 이유리 |
| 이유림 | 이윤선 | 이은숙 | 이재림 | 이종미 | 이행자  | 이홍자 |
| 임중현 | 장민경 | 장수자 | 정문옥 | 정석용 | 정수경  | 정승원 |
| 정은숙 | 조순영 | 조연신 | 조종남 | 지복임 | 채서은  | 최경자 |
| 최 봄 | 최혜란 | 하태진 | 한정신 | 홍근표 | 월요카페 |     |
-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재능 기부



- 조혜성(회원활동팀 위원)  
핸드메이드 앞치마 제작 기증(매월 누리봄 입주자에게 선물)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4년 3·4월 회보 '예술과 삶' 칼럼 기고

## 복멘토링 후원



- |     |     |     |      |     |     |     |
|-----|-----|-----|------|-----|-----|-----|
| 구영숙 | 김민아 | 김상희 | 김선자  | 김성연 | 김정숙 | 김지영 |
| 김진숙 | 김한나 | 김혜경 | 남은희  | 박나영 | 박미소 | 박소현 |
| 박용천 | 박진선 | 박채원 | 배은경  | 손예림 | 손지용 | 송태언 |
| 신여명 | 신정숙 | 심영자 | 양진화  | 염현경 | 예정원 | 우영숙 |
| 이연배 | 이윤선 | 이재림 | 이푸른하 | 이현미 | 이희정 | 임재연 |
| 정모아 | 조민형 | 창 진 | 최동수  | 최보미 | 최 봄 | 최정우 |
| 최한나 | 최혜영 | 한혜영 | 월요카페 |     |     |     |

## 월 CMS 후원



- |     |     |     |     |     |     |     |
|-----|-----|-----|-----|-----|-----|-----|
| 감윤우 | 감윤익 | 강경아 | 강경희 | 강금미 | 강동우 | 강명숙 |
| 강문숙 | 강미영 | 강민아 | 강선경 | 강신범 | 강신봉 | 강영숙 |
| 강영임 | 강유민 | 강윤정 | 강은영 | 강일훈 | 강주현 | 강창석 |
| 강하자 | 강형식 | 경규연 | 계숙화 | 고경혜 | 고동연 | 고선자 |
| 고선혜 | 고선환 | 고성희 | 고은경 | 고은비 | 고은화 | 고은희 |
| 고인미 | 고재옥 | 고홍애 | 공명주 | 공민희 | 공우재 | 곽동윤 |
| 곽민정 | 곽지영 | 구다은 | 구미영 | 구수영 | 구오영 | 구지영 |
| 권경자 | 권규상 | 권기웅 | 권내영 | 권범찬 | 권부남 | 권성준 |
| 권순철 | 권예현 | 권우경 | 권은희 | 권정연 | 권정희 | 권지혜 |

- |     |      |      |     |     |     |     |
|-----|------|------|-----|-----|-----|-----|
| 권태진 | 권혁준  | 권현준  | 권형하 | 권혜진 | 권희원 | 권희정 |
| 길명경 | 길소연  | 길종선  | 김경미 | 김경미 | 김경배 | 김경삼 |
| 김경선 | 김경옥  | 김경원  | 김경일 | 김경화 | 김경훈 | 김경희 |
| 김관옥 | 김관채  | 김귀숙  | 김규진 | 김금자 | 김기연 | 김기호 |
| 김나영 | 김남미  | 김다임  | 김대영 | 김대진 | 김도근 | 김동은 |
| 김동형 | 김두희  | 김라엘  | 김말녀 | 김명수 | 김명후 | 김문자 |
| 김문휘 | 김미경  | 김미경  | 김미선 | 김미재 | 김미정 | 김미정 |
| 김미현 | 김민성  | 김민숙  | 김민정 | 김민지 | 김배옥 | 김병수 |
| 김병호 | 김보라  | 김봉근  | 김봉희 | 김상관 | 김석대 | 김선경 |
| 김선덕 | 김선미  | 김선영  | 김선화 | 김선희 | 김성민 | 김성민 |
| 김성애 | 김성준  | 김성혜  | 김성희 | 김세진 | 김소망 | 김소희 |
| 김수연 | 김수연  | 김수연  | 김수현 | 김수호 | 김순경 | 김순남 |
| 김순자 | 김순자  | 김승재  | 김시은 | 김애숙 | 김양미 | 김양선 |
| 김양숙 | 김에스터 | 김연경  | 김연숙 | 김연순 | 김연희 | 김영숙 |
| 김영식 | 김영심  | 김영옥  | 김영주 | 김영혜 | 김예지 | 김예지 |
| 김옥민 | 김용관  | 김용숙  | 김용숙 | 김용오 | 김용임 | 김우인 |
| 김원경 | 김원경  | 김유성  | 김유애 | 김유진 | 김윤종 | 김윤지 |
| 김윤진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민 | 김은애 | 김은애 | 김은혜 |
| 김은희 | 김은희  | 김익동  | 김인하 | 김지희 | 김재경 | 김재숙 |
| 김재신 | 김재영  | 김재윤  | 김재진 | 김재현 | 김정남 | 김정대 |
| 김정래 | 김정숙  | 김정순  | 김정애 | 김정연 | 김정옥 | 김정완 |
| 김정자 | 김정철  | 김정환  | 김종문 | 김종숙 | 김종운 | 김준희 |
| 김지나 | 김지선  | 김지수  | 김지수 | 김지연 | 김지연 | 김지연 |
| 김지영 | 김지영  | 김지영  | 김지은 | 김지호 | 김지희 | 김진숙 |
| 김진숙 | 김진아  | 김진향  | 김진호 | 김창섭 | 김철민 | 김철주 |
| 김철준 | 김충헌  | 김치백  | 김태경 | 김태식 | 김태연 | 김태준 |
| 김태준 | 김태한  | 김통범  | 김해정 | 김행미 | 김향점 | 김현경 |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숙  | 김현영 | 김현일 | 김현정 | 김현정 |
| 김현종 | 김현주  | 김현주  | 김현주 | 김형모 | 김형순 | 김형순 |
| 김형태 | 김혜경  | 김혜성  | 김혜실 | 김혜양 | 김혜정 | 김혜진 |
| 김홍우 | 김화숙  | 김효숙  | 김효은 | 김희열 | 김희영 | 김희원 |
| 김희정 | 김희정  | 김희정  | 김희준 | 김희준 | 나미정 | 나선화 |
| 남궁정 | 남궁진  | 남궁혜정 | 남상택 | 남연정 | 남윤경 | 남희숙 |
| 노남례 | 노병균  | 노인화  | 노일권 | 노정자 | 노혜환 | 동지현 |
| 류종현 | 류 혁  | 마초희  | 명정신 | 목동진 | 문경혜 | 문다영 |
| 문미현 | 문신환  | 문은식  | 문자영 | 문현숙 | 문형규 | 문형진 |
| 문혜경 | 민경술  | 민동성  | 민선기 | 민수홍 | 민여진 | 민정애 |
| 민지홍 | 민혜경  | 민혜경  | 박강규 | 박경미 | 박경옥 | 박경호 |

- |     |     |     |     |     |     |     |
|-----|-----|-----|-----|-----|-----|-----|
| 박경희 | 박경희 | 박경희 | 박광택 | 박구자 | 박근화 | 박노영 |
| 박명윤 | 박문성 | 박미영 | 박미용 | 박병주 | 박상수 | 박상정 |
| 박선미 | 박선주 | 박소윤 | 박소현 | 박소현 | 박송아 | 박순예 |
| 박순주 | 박시윤 | 박신자 | 박양신 | 박영미 | 박외정 | 박용진 |
| 박운용 | 박윤경 | 박윤솔 | 박은영 | 박은지 | 박은혜 | 박인선 |
| 박지현 | 박정연 | 박정우 | 박정원 | 박정희 | 박종화 | 박종희 |
| 박주영 | 박지훈 | 박 진 | 박진용 | 박진화 | 박찬인 | 박초순 |
| 박춘필 | 박춘화 | 박태경 | 박태희 | 박 현 | 박현숙 | 박현숙 |
| 박혜리 | 박혜숙 | 박혜자 | 박혜진 | 박휴영 | 박희봉 | 방윤옥 |
| 방윤우 | 방혜영 | 배광순 | 배민선 | 배상현 | 배수남 | 배영우 |
| 배은경 | 배은진 | 배정미 | 배종우 | 배진영 | 배호성 | 백명숙 |
| 백운선 | 백은선 | 백은엽 | 백정금 | 백향덕 | 백향란 | 백향은 |
| 변영순 | 변은수 | 봉진영 | 서근배 | 서락원 | 서미화 | 서빛나 |
| 서영미 | 서예석 | 서옥덕 | 서은경 | 서정연 | 서정희 | 서지영 |
| 서해원 | 서현옥 | 석상화 | 석성욱 | 석영미 | 성경란 | 성덕화 |
| 성연석 | 성윤수 | 성지윤 | 성지윤 | 성지희 | 성진원 | 성호숙 |
| 손승혜 | 손지용 | 송경진 | 송길례 | 송상경 | 송세은 | 송욱의 |
| 송윤주 | 송이라 | 송재임 | 송정민 | 송종우 | 송창은 | 송태언 |
| 송하윤 | 송혜승 | 신경자 | 신동선 | 신민자 | 신상용 | 신상우 |
| 신승우 | 신연식 | 신용자 | 신정욱 | 신지숙 | 신지원 | 신지윤 |
| 신지혜 | 신찬용 | 신총섭 | 신현미 | 심경호 | 심정자 | 심혜영 |
| 안성포 | 안성훈 | 안순자 | 안승계 | 안영운 | 안영호 | 안유진 |
| 안윤희 | 안정국 | 안정희 | 안진희 | 안진희 | 안태건 | 안혜리 |
| 양기혁 | 양세진 | 양수정 | 양영순 | 양종숙 | 양진영 | 양현옥 |
| 엄수길 | 여명진 | 염문철 | 염미행 | 염용희 | 염은애 | 염지수 |
| 염지희 | 오경아 | 오미영 | 오성아 | 오소연 | 오연아 | 오영아 |
| 오은주 | 오재준 | 오점희 | 오지영 | 온기석 | 왕정환 | 용윤희 |
| 우수경 | 우승현 | 우영숙 | 우재하 | 우현주 | 우훈희 | 원경애 |
| 원연정 | 원유철 | 위정선 | 유규진 | 유남석 | 유남실 | 유덕호 |
| 유동미 | 유미나 | 유미영 | 유병순 | 유성희 | 유 숙 | 유순희 |
| 유승연 | 유예목 | 유은경 | 유은희 | 유재미 | 유재현 | 유정선 |
| 유정순 | 유정환 | 유주빈 | 유현숙 | 윤경례 | 윤경숙 | 윤경진 |
| 윤광미 | 윤문노 | 윤미경 | 윤미소 | 윤상은 | 윤서희 | 윤 선 |
| 윤선영 | 윤선희 | 윤성섭 | 윤소영 | 윤소영 | 윤순민 | 윤장범 |
| 윤재숙 | 윤재혁 | 윤정향 | 윤정화 | 윤정희 | 윤지영 | 윤지완 |
| 윤 혁 | 윤형석 | 윤혜섭 | 윤혜진 | 윤희경 | 윤희숙 | 윤희정 |
| 이가영 | 이가영 | 이건우 | 이건우 | 이건학 | 이경근 | 이경민 |
| 이경아 | 이경애 | 이경연 | 이경옥 | 이경자 | 이경희 | 이경희 |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든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혜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예은 이옥경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응열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이재욱 이재욱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채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남 이희전 임동숙 임동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준 임순화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길례 장석귀 장선희 장순복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선희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욱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동신 정문옥 정미선  
 정미성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영롱 정영희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하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정해운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형운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명애 주우철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문희 최민영 최 불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선미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찬호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명금  
 홍경화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황주혜 황지희

(주)건축사사무소빅 그린에이전시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스튜디오GAGA 씨에러여성의원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앤씨 콤마,와인 파티인테리어  
 향기나무

우리 **같이** 걸을까요?  
 가치

# 2024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2024. **5.11.** (토)  
 오전 8시 - 11시 30분  
 남산공원(백범광장 · 남산순환로)



**프로그램** 8:00 - 8:30 **같이가치 열어봄** 식전 행사, 개회식  
 8:30 - 10:40 **같이가치 걸어봄** 남산순환로 걷기  
 10:40 - 11:30 **같이가치 해봄** 체험부스, 행운권 추첨, 폐회식

**참가등록비** 성인 10,000원 어린이 · 청소년 5,000원

**기념품** 손수건(하늘색)

**복장** 상의 흰색, 하의 자유

**접수** 서울Y 본부 · 5개 지부로 사전 신청, 온라인 등록 후 참가비 입금

**문의** 02-3705-6000, 6032



온라인 접수  
 바로 가기

**같이** 실천  
 가치

- 서울YWCA 가치에 동참하는 누구나 등록(사전등록 · 현장등록) 후 참가 가능해요
- 대중교통 이용해 '탄소 줄이기'에 동참해요
- 쓰레기는 스스로 정리하여 남산을 지켜요
- 손수건(하늘색) 재사용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해요

- 손수건 재사용 시에도 참가등록비는 동일해요
- 노약자는 행사 진행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 불비가 와도 걸어요(우산 · 우비 개인 준비)
- 운동화, 개인용 돗자리 준비해주세요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 **문의 02-3705-6008**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일만에 속부터 콕 차오르는 밀도 탄력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당신의 꿈은 행복에 닿아있나요?”

도시에서 거주하고, 지방에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청년인 나는 일 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도시와 멀어지는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에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무심코 들린 편집숍에서 2024년 내내 고민하게 만들 것 같은 문구를 읽었다. “너의 꿈이 언제나 행복에 닿아있기를...” 인생의 시간을 더 길게 보낸 기성세대에게 혹은 꿈에 가까워진 이들에게 자신이 설정했던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던 여정들이 행복에 닿아있었는지 묻고 싶어졌다.



한라산 새벽 등반 후 백록담에 도착해서 (2023)

바쁜 현대사회에서 사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꿈’을 오늘의 대화 주제로 설정했을 때, 나조차도 내 꿈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겠다. 그나마 꿈과 가까운 표현을 찾아서 ‘목표’로 바꿔

생각해봤는데, 내 여정에는 웃음 보다는 집중의 무표정이 먼저 떠올랐다. 혼자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해야 하는 일은 ‘낭만’을 찾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2015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만난 스페인 할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은 레이스(경기)가 아닌데, 무엇을 위해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 속도전을 하는지 물었다. 그때는 아무런 답도 못 했지만, 다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나만의 속도로 완성도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나도 청년이지만, 여러 활동을 통해 만나는 청년, 청소년들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피에스테라로 걸어가며 (2015)

을 만날 때 꿈이 뭐야? 물어보면 이제는 직업이 꿈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실감한다.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는 건 아직 마음의 계절이 겨울인 이유일 것이다. 청년과 청춘의 시간을 먼저 보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와 가르침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 꿈을 꾸게 해주는 일이 아닐까.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나이라고 느껴지거나,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세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할 타이밍이다. 먼저 지나온 내 꿈은 행복에 닿았는지,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인과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웃으면서 여정을 걸을 수 있게 이끌 수 있는지. 세 가지 의문이 해결된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사람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기성세대, 청년 모두에게 그저 꿈이 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꿈을 택하는 그 날까지, 당신의 꿈이 행복에 닿아있기를 바란다. **U 클이공이(활동명)**



회원 소식

**이봉주** 평생체육팀 위원

4월 2일(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봉주의 춤-이순신 양천에 오다〉 공연

**홍기영** 평생체육팀 위원

4월 2일(화) 둔화문국악당에서  
〈임정숙의 춤 ‘교방향연’-교방검무(정민류)〉 공연

**최혜란** 역대이사·홍보출판팀 위원

4월 16일(화) 시모상

2024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청년YWCA 협의회

- 회장 고하은(동국대학원, 피스톡톡)
- 부회장 서예은(경희대학교, 씽크머니)
- 서기 이지현(이화여자대학교, 씽크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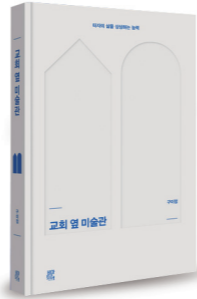
Y-틴 협의회

- 회장 임서현(이화여자고등학교 Y-틴)
- 부회장 배지원(한성여자고등학교, 키다리학교)

추천 도서

교회 옆 미술관

구미정 지음  
비아토르 펴냄  
264쪽



“문자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머리만 키운다. 가슴으로 이웃과 공감하고 타자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로고스(이성/논리) 중심의 삶이 파토스(감성/예술)로 보완되지 않으면 에토스(영성/윤리)가 길을 잃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책이 신앙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14쪽)”

기독교 인문학자이자 이은교회 담임목사인 구미정 교수의 신간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여성’이다. 하갈, 십브라와 부아에서 사르밧 과부와 슬람미 여인에 이르기까지 총 24명의 여인들을 소환해 어떤 폭력과 소외와 배제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들려준다. 저자는 성경 속 다양한 인물의 삶과 그 삶을 화폭에 담아낸 예술 작품들을 통해 공감과 위로, 삶의 활력을 독자에게 선물한다.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2024년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각자도생사회에서

공존의 길을 묻는다

6월 11일, 18일, 25일(화) 14:00-16:00  
서울YWCA 1층 마루 & 유튜브 라이브



신청하기

불평등과 갈등, 혐오와 차별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의 문제와 원인을 찾아보고 기독교시민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기독교시민의 삶이 확장되는 믿음과 실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의 | 02-3705-6034

1강

각자도생의 한국사회 진단

6월 11일(화)  
14:00-16:00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무엇이 한국 사회를 이토록 외롭고 아프게 만드는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와 ‘너’ 사이 틈을 비집고 연결 감각을 살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BOOK TALK

「외로움의 습격(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김만권, 해다

2강

‘공정’을 넘어 ‘공존’을 향하여

6월 18일(화)  
14:00-16:00



나임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다양한 존재(와)의 공존 없는 공정의 결과는 무엇일까? ‘어떤’ 존재들을 온전히 존재지 못하게 하는 ‘그’ 공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감각’이 ‘공존감각’을 지워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시민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묻습니다.

BOOK TALK

「공정감각」, 나임윤경 외, 문예출판사

3강

살아내고 살려내는 ‘사이-공동체’

6월 25일(화)  
14:00-16:00



백소영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기독교시민은 어떤 공동체를 살아내고, 또 세울 수 있는가? 공동체적 시선으로 성경을 보며, 현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찾고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BOOK TALK

「살아내고 살려내고(사이-공동체로 사는 법)」, 백소영, 대한기독교서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프로그램

영등포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3040 e-커머스 온라인 MD실무	6월 1일- 8월 14일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5월 24일(금) 14:00
실버인지보드게임 강사 양성	5월 13일-7월 4일 (월-목) 10:00-13:00
스마트스토어팜 (네이버스토어+아마존)	7월 23일-9월 10일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7월 5일(금) 14:00

노원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한식조리 기능사 속성반(실기)	5월 13일(월)-7월 9일(화) (월·화) 14:00-17:00
[서울시 지원]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상담실무	5월 27일(월)-7월 24일(수) (월-금) 9:30-13:30
[국민내일배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6월 3일(월)~6월 24일(월) (월-금) 14:00-18:00
부동산 경매와 셀프 등기	6월 13일(목)-8월 1일(목) (목) 9:30-13:30

- 신청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교육비 과정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

서울Y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극단 축

창의적인 여가 문화생활 영위와 연극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극단 축에 서울Y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14:00
- 신청 대상 연극에 뜻이 있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 YWCA 합창단

아름다운 노래와 성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 깊은 YWCA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보세요

-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13:00
- 신청 대상 노래와 합창을 사랑하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김희순 단장 010-3687-9647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sup>AD</sup>





# 서울YWCA 회원이 되어주세요

서울Y는 1만 명의 여성 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 22개, 2023년 20개에 이어 올해는 28개의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기간  
4월 15일(월)  
|  
6월 28일(금)

## 회원 구분

구분	회비
월 C M S	월 10,000원부터 직접 금액 지정
어린이 · Y-틴	5,000원
대 학생	15,000원
일반 · 회우	30,000원
평 생	1,500,000원 (회원증모기간 내 1,000,000원)
단체 ( 기업 )	150,000원부터

## 회원증모 기념품

봄봄 파우치  
(어린이 · Y-틴, 대학생 제외)  
\* 봄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 누리봄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 입금 계좌

농협 317-2021-0706-6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왜 후원하면?** Seoul YWCA

회원증모 영상 보기



문의 02-3705-6008

## 2024년 서울YWCA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문

노병균  
초원교회 담임목사

###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껏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당신의 기관에 소망과 목자가 되시옵소서.

###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껏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그 100년 동안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막막한 들판을 지나, 때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늘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면, 오늘의 성과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 나그네와 환난 당한 이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그네를 돌보시며, 곤궁한 자를 살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그 은총 아래에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그네에게 시선을 주시고,  
환난 당한 이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그 봉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올해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구합니다.  
더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눅10:2) 하신 주님!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친히 뽑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 구하는 이에게 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행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조차 살아보지 않았으니,  
어렵고 떨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오나 "주님은 나의 길, 나의 목자,  
그리고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답"이라고 하셨사오니, 당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맡은 직무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작은 이의 헌신과 당신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그 산에서처럼 작은 이들을 모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축사하셔서, 모두가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빵을 나누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 구하는 것애나, 바라는 것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 박영숙

영원한 현역 운동가  
1932-2013

‘시대의 역사와 자신의 역사를 동기화시킨 여성’  
‘여성운동 · 평화운동 · 환경운동의 큰 어른’

박영숙 선생은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19살에 월남해 광주에 정착,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후에는  
대한YWCA연합회에서 여성·시민·환경운동을 시작했다.  
1963년부터 68년까지는 연합회 총무로 활약했다.

1967년 민중 신학자 안병무 박사와 결혼한 선생은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으로 배우자가 구금되자  
구속자 가족 시위를 펼쳤다. 또한 그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시  
피해자 권인숙에게도 유죄가 선고되자 ‘민주화 투사’를 자처했다.

1987년 평민당 부총재로 정계에 입문한 선생은,  
이듬해 제13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  
환경부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에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교회 내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에도 앞장섰다.

국민훈장 모란장(1998), 무궁화장(2004)을 받은 선생은  
마지막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어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살림이재단을 설립(2009)하고  
아시아위민브리징 두런두런 초대대표(2011),  
여성환경연대 80대 으뜸지기로 활동했다.

박영숙살림터는 선생의 뜻을 기리며 성평등 · 평화 · 생명 가치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와 단체에  
2014년부터 매년 ‘박영숙 살림이상’을 시상하고 있다.



박영숙 선생이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한  
한국여성재단에서 만든  
‘THE STORY 박영숙’ 영상 보기

